제42회 광일보훈대상 영광의 얼굴들

희망·용기 북돋아 준 값진 희생

'제42회 광일보훈대상'(光日報勳大賞) 시상식이 6일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날 시상식엔 전홍범 광주지방보훈청장과 시민・가족 등 300명이 참석한다.

'광일보훈대상'은 호국·보훈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보훈가 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광주일보사가 제 정, 올해로 42번째를 맞고 있다.

영광의 수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상이군경 부문 김선영씨 군 복무중 사고 당해…불우이웃 돕기 앞장

김선영(64)씨는 지난 1971년 육군 51사단에 입 대한 뒤 만기 전역했다. 그는 군 복무 중 다쳐 상이 등급 3급 판정을 받았다.

지난 1974년 결혼한 뒤 1남3녀를 둔 그는 어려 운 여건 속에서도 1987년부터 과수원 등을 운영해 자수성가한 뒤 1998년 주민자치위원장을 맡으면 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왔다.

그는 특히 2006년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광주시 지부 남구지회장 역임 당시 생활 형편이 어려운 독거 회원들에게 수 차례에 걸쳐 김치·백미·생필 품 등을 지원하는 등 불우이웃돕기에 솔선수범하 고 있다. 그는 또 해마다 보훈병원을 방문, 입원환 자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고 목욕서비스를 해주 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중상이자 부인 윤은숙씨 하반신 장애 남편 양궁선수 활약 '금메달' 내조

윤은숙(여·47)씨는 지난 1982년 1월 5일 육군 에 입대한 뒤 육군사관학교에서 교관으로 근무하 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해 전역한 공상군경 상이 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최정윤씨의 아내다.

그는 1994년 하반신 장애의 남편을 만난 뒤 자 신을 희생해서라도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살피겠다는 마음으로 결혼했다.

그는 정성을 다해 남편을 내조한 결과, 남편은 지난 2005년 대한상이군경체육회 소속 양궁선수 로 선발됐다. 이후 남편은 브라질 IWAS대회 동 메달(2005년), 일본 챔피온쉽대회 단체전 금메달 (2007년), 미국 애리조나 올드랭킹대회 단체전 은 메달, 전국체전 단체전 은메달 등 국내외 대회에 서 수 차례에 걸쳐 메달을 획득했다.



미망인 부문 박영자씨 홀로 시조부모까지 모시고 농삿일 등 '억척'

박영자(여·74)씨는 지난 1962년 남편 최동규와 결혼한 뒤 아들 1명을 뒀다. 남편은 1964년 육군 강원도 12사단에서 훈련 중 홍수에 떠밀려 순직했 다. 21살의 나이에 미망인이 된 그는 슬퍼할 겨를 도 없이 시조부모와 시부모·시동생·자녀의 생계 를 책임지기 위해 일터로 나섰다. 그는 날품팔이ㆍ 농삿일 등을 하며 어려운 세월을 보냈지만 남편의

의로운 죽음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는 젊었을 적 온갖 궂은 일을 다한 후유증으 로 몸이 불편한데도, 소년소녀가장 후원 등 봉사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그는 어려운 여건 속에 서도 가족들을 위해 희생한 공로를 인정받아 장한 어머니상(1997년)·효부상(1975년)·광주시장상 (2007년) 등을 수상했다.



전몰군경 유족 곽태호씨 부친 교전 중 사망…동생 3명 뒷바라지

곽태호(80)씨는 지난 1950년 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던 아버지 곽문석이 인민군과 교전 중 사 망한 뒤 편모 슬하에서 3명의 어린 동생들을 돌보 며 실질적인 가장역할을 해왔다.

이후 그는 고교를 졸업한 뒤 모교인 숭의중 행 정실과 담양 농협 등에서 근무하면서 어린 동생들 을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키는 등 주변인들로부터 장남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그는 지 난 1999년 1월 전몰군경유족회 광주시지부 북구 지회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 장 지원활동, 유엔전사자 유족돕기, 국립묘지 무 연고 한송이 헌화운동 등 모범적인 생활을 이어가 고 있다.



특별 부문 이상기씨 6·25참전 중 인민군 생포···화랑무공훈장 받아

이상기(84)씨는 지난 1949년 8월 1일 육군 5사단 야전공병대대에 입대한 뒤 6·25에 전쟁에 참전, 인 민군을 발견·생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화랑무공훈 장을 받았다. 그는 또 1951년 3월 야전공병대대 1 분대장으로 복무 중 적에 의해 보급로가 차단되자 미군기계화부대에 소속돼 미군 안내 및 통역 업무 등을 맡아 적을 섬멸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후 전역한 그는 35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한 뒤 퇴직,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무공수훈자회 광주시지부 고문위원인 그

는 무공수훈자 전공비 청소활동을 비롯한 불우회 원 돕기 운동, 차량이동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봉 사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전남 비소식 주말·휴일엔 덥다

5일 광주·전남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예상된다. 주말과 휴일 (6~7일)은 비 소식은 없지만 낮 최고기온 이 31도까지 올라 덥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5일 광주·전남은 대체로 흐리고 해안과 일부 내륙지방에 오 전에 비가 온 뒤 낮부터 점차 그칠 것"이라 고 4일 예보했다. 예상 강우량은 5mm 내외.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5~18도, 낮 최고 기온은 20~28도로 전날보다 다소 낮겠 다. 현충일이자 주말인 6일은 고기압의 영 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13~17도, 낮 최고기온은 24~31 도. 휴일인 7일 광주·전남은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한낮엔 기온이 곳에 따라 31도 까지 올라 무더운 날씨가 예상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무등록 직업소개소 차려 장애인 취업 알선 돈 챙겨

전남지방경찰청은 4일 무등록 직업소개 소를 운영하며 장애인 등 30여 명을 어선, 염전 업주에게 취업을 알선한 혐의(직업 안정법 위반)로 직업소개업자 현모(57)씨 를 구속하고 최모(6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 등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올해 5월 7일까지 목포시 용당 동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된 직업 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지적장애인을 비롯 한 30여명을 어선, 염전, 김양식장에 인부 로 넘겨 임금의 20%에 달하는 소개비와 구직자 차용금 명목으로 1억4800만원을 챙긴 혐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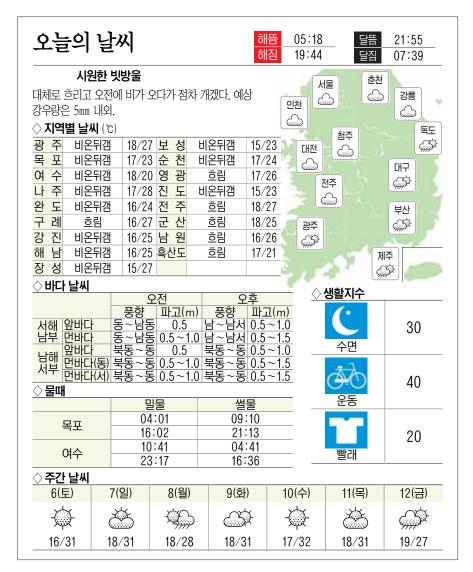
경찰 조사결과 현씨는 지난 2013년 1월 시각장애 6급 판정을 받은 김모(54)씨에게 술값 500만원을 빚을 졌다고 속이고 새우 잡이 어선에 취업을 알선한 뒤 소개비와 차용금(5개월분 급여) 명목으로 2180만원 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을 상대로 여죄도 수사하고 있다.

/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주인의 허락 없이 건물벽 낙서 엄벌

주인의 허락 없이 건물 벽면에 낙서하면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지하철 전동차나 빌딩의 벽면에 몰래 페인트로 그 림을 그리는 '그라피티'(graffiti)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그라피티 행위를 엄벌하기 위해 형법상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재물손괴로 입건되면 3년 이하 징역 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을, 건조물침입은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남광주시장, 문화관광형 '명품시장'으로

남광주해뜨는시장 상인회, '디자인 점포대학' 개설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대대적 탈바꿈 시도

남광주시장이 오는 9월 국립 아시 아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문화관광형 '명품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본격적 인 활동에 돌입했다.

남광주해뜨는시장 상인회는 4일 남 광주시장 내 점포를 대대적으로 탈바 꿈하기 위해 '디자인 점포대학'을 개 설한다고 밝혔다.

디자인 점포대학은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서 파견한 마케팅 전문가에게 SNS 마케팅, POP활용, 상품개발 및 소포 장 등 실습 중심의 교육을 받을 수 있 도록 돕는다.

낡고 노후된 점포들에 대해 디자인 개선 사업을 벌이는 등 점포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화교육을 목적으로 6 월 셋째주 개강할 예정이다.

남광주해뜨는시장 상인회는 또 남

광주시장 상인회와 함께 행정자치부 가 주관하는 '2015년 전통시장 야시 장'에 공모, 1차 심사를 통과해 오는 12일 실사단 방문을 앞두고 있는 등 전국 6개 전통시장과 경쟁을 벌이고

남광주시장은 아시아문화전당과 인접(도보 6분)한 점을 내세워 방문객 을 야시장으로 유도해 시장을 활성화 하겠다는 입장으로 외국인 관광객들 에게 광주의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특성화된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남광주해뜨는시장 상인회 관계자 는 "광주 지하철 남광주역이 인접해 광주 시민들의 접근성도 뛰어나다"며 "아시아음식문화 거리와도 연계할 수 있어 이번 사업에 기대가 크다"고 설 명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